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겠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교육자치·교육정의·노동 존중·환경보호·통일교육’ 강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3일, “3선 교육감으로서 전북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직선 3기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자치와 교육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지만, 교육의 중앙집권은 난공불락의 성채처럼 서있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기여

해야 하는 교육이 교육관료들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한 역사가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전북교육청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 교육을 관료들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정의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그리고 특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전북교육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청과 학교는 선한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노동의 헌법적 가

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노동 현장과 연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 교육적폐 1호인데, 현 문재인 정부가 이 적폐를 끌어안고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1회용품 없는 전북교육청’을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는 오랫동안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경시해 왔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구라는 말은 종이

위 글자에 불과했고, 그것이 우리 의식과 삶으로 스며들지 못했다”면서 “인간의 감각적인 편리함을 위해 습관적으로 사용해왔던 1회용품을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계획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4월27일 남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역사적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사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남북 동포들의 열망이 키워낸 감격적인 성과물”이라고 평가한 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통일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오일석 교수 저서, 우수도서 선정

저서 '기계학습' 기계 학습의 원리와 응용 꿰뚫어 오 교수, 2008년과 2014년 이어 세 번째 선정 영예

전북대학교 오일석 교수의 저서 '기계학습'이 2018 대한민국 학술원 자연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오 교수는 2008년 '패턴인식', 2014년 '컴퓨터비전'에 이어 세 번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책은 기계 학습의 원리와 응용을 한 권에 꿰뚫고 있다. 학생과 개발자, 연구원 등 다양한 수준의 독자가 기계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계 학습의 원리와 응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답러닝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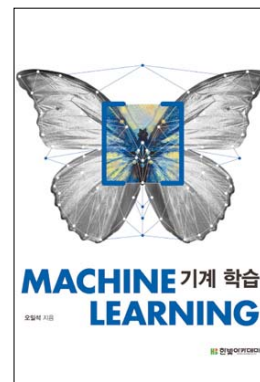
특히 원시적인 학습 모델에서 출발해 현대 학습 모델까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설명하고 있고, 새로운 기법과 이전 기법을 대비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다양한 그림과 예제, 알고리즘을 함께 제시하여 보다 쉽게 수학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승전결의 이야기 방식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적 흥미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배려한 점도 돋보인다.

한편,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2002년부터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학술원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술도서는 교육부가 대학 수요 등을 고려해 구입 후 11월까지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해 기초학문 분야에의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초·중·고 진로 자유학기제 학부모 교육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은 지난 2일부터 임실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진로, 자유학기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진행된 학부모 교육은 <제4차 혁명시대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로의 자녀교육방향>이란 주제로 가치공학연구소 소장 최장훈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님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 자유학기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단순한 국영수 위주의 암기식 교육, 학벌위주 교육보다는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적성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꿈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로

에 대한 학부모 인식전환과 역할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어,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진로, 자유학기제 수업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활 속 에 배우는 목공기술' 시간을 가졌는데 숨겨진 재능을 뽐내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수가 진행되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은 '우리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학력관을 벗어나 창의력, 융합능력, 협업, 감성적인 이해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교육지원청은 2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진로, 자유학기제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방사능 검출 해 드려요'

침대·이불·안마기·목걸이·의류 등 생활용품 간이측정

최근 방사성 체인 리돈이 검출된 침대가 논란인 가운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생활용품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침대, 이불, 안마기, 목걸이, 의류 등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여부를 측정해준다고 밝혔다.

이들의 방사능 검출 여부는 정밀분석이 아닌 간이측정기(QSF-104B)로 측정해 자연방사선(라돈)과 인공방사선(베타, 감마) 검출 유무만 확인할 수 있고, 핵종분석 같은 정밀분석은 불가능하다.

방사능 검출 측정 이유는 최근 대전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전국적으로 생활 속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해당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원인은 매트리스에 사용된 음이온 가루인 모자나이트 때문이었다.

모자나이트는 천연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돼 이들이 붕괴하며 라돈가스가 체내로 흡입되며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문제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논리로 방사능을 내뿜는 음이온 가루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 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이에 라돈침대 사태를 계기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캠페인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여부를 점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민에게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정부에 전면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뉴스

원광대, 몽골국립농업대학과 농업·산학 교류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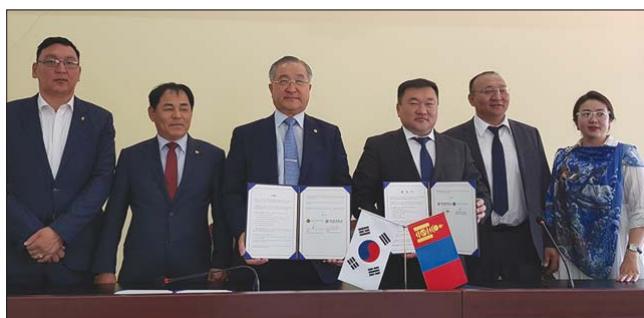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몽골국립농업대학(총장 해투가)가 최근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도중 총장 일행이 최근 몽골국립농업대학을 방문해 이루어진 이번 협약은 종자 개량 및 조립사업 추진, 학생 현장실습 파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업 관련 분야에서는 원광대 중점사업인 육종연구 협력과 함께 몽골국립농업대학 측에서 울란바토르 북쪽 40km 지점에 있는 약 6.7ha(약 2만평)의 조립지역을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몽골 기후와 토양에 맞는 종자를 연구·개발해 조립지에 옮겨 심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육종 연구와 함께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획득하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김도중 총장은 “몽골이라는 큰 나라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큰 실험장이 될 것”이라며, “원광대는 몽골국립농업대학과 함께 현지에 맞는 육종을 개량하는 선도적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몽골국립농업대학(총장 해투가)가 최근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